

老乞大와 그 諺解書의 異本

安 秉 禧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老乞大와 그 諺解書에 대하여는 많은 소개와 연구가 있다. 더욱이 그 諺解書들은 影印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그때마다 解題가 붙어 있어 그 책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한 影印本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老乞大諺解(奎章閣叢書第九, 京城帝大法文學部, 1944. 解題: 末松保和)
2. 翻譯老乞大 卷上(中央大出版部, 1972. 解題: 南廣祐)
3. 翻譯老乞大 卷下(仁荷大人文科學研究所, 1975. 解題: 南廣祐)
4. 重刊老乞大諺解(弘文閣, 1984. 解題: 金文雄)

影 1(위의 影印本 1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奎章閣 소장인 17세기 후반의 活字本을 저본으로 하였는데, 책뒤에 原典인 老乞大의 한 異本도 영인하였다. 解放 이후 國內外에서 이 影印本을 저본으로 한 影印本이 다시 간행되기도 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影 2, 3은 16세기 전반 崔世珍이 번역한 諺解本이 발견되어 영인된 책인데, 老乞大의 諺解書로는 유일한 中世語資料이다. 影 4는 書名만으로는 老乞大를 개수하고 언해하여 1795년(正祖 19 乙卯) 간행한 重刊老乞大諺解를 영인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앞의 影 1의 底本을 1745년(英祖 21) 平壤에서 중간한 木版本도 함께 영인한 것이다.

이들 影印本은 현재까지 學界에 알려진 老乞大諺解書의 異本이 모두 망라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로는 原典의 내용이 가장 오랜 모습을 보이는 老乞大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老乞大나 그 諺解書의 書誌를 말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들 影印本 중에는 그대로 國語史資料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우선 底本이 잘못 선정된 경우다. 가장 널리 보급된 影 1이 그러한 예이다. 다음으로는 影印과정에서 底本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경우인데, 影 3이 대표적인 예다. 그뿐 아니라 현재까지 행해진 老乞大諺解書에 대한 書誌的 研究로는 빠뜨려서 안될 중요한 업적인 데도 그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하면, 내용이 알려졌으나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것이 있다. 전자의 예는 金壽卿의 〈老乞大 諸板의 再吟味〉(日文, 油印本, 京城帝大法文學部, 1945)이고,¹⁾ 후자의 예는 方鍾鉉선생의 影1과 관련된 「老乞大諺解」와 「老乞大諺解의 影印原本과

訂正本과의 比較」이다.²⁾ 그밖에 알려지지 않은 諺解書도 보게 되었다. 이에 이들 업적을 포함하여 중전의 연구를 참고하면서 老乞大諺解書와 그 原典인 老乞大의 異本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2. 老乞大의 異本

다 알다시피 老乞大는 朴通事와 함께 司譯院에서 가르치고 譯科에서 科試用으로 쓰인 대표적인 漢學書다. 이들 책을 언제 누가 편찬하였는지 분명한 기록은 없으나, 高麗 때부터 있어 온 것은 분명하다. 翻譯老乞大등에서 우리나라를 ‘高麗’라 하여 ‘高麗王京, 高麗人’이란 어구가 나오며, 15세기 후반 中國에서 온 使臣의 일행인 戴敬이 이들 책을 보고 元나라 때 말이라 당시 중국어와 달라서 모르는 곳이 많다고 하였으며,³⁾ 崔世珍이 老朴集覽에서 ‘者’를 주석하기를 蒙古語의 諸辭라 하면서 老乞大와 朴通事の 舊本이 다 元나라 때 말을 베껴 쓴 것이라 ‘者’가 많으나 지금 쓰지 않기 때문에 新本에서는 ‘着’으로 바꾼다고 한 것등이 그것을 말한다.⁴⁾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老乞大의 異本에서 가장 오래 것도 高麗 때의 책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崔世珍이 말한 舊本이 아니라 新本이다. 이 新本은 翻譯老乞大의 原典으로서, 또 현재 가장 오래 老乞大로서 전하는 책인데, 元나라 때 말을 수정한 내용이다. 그 수정은 實錄의 기록에 따르면 15세기 후반 成宗 때에 있었던 일로 추정된다.⁵⁾

이때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위에 인용된 ‘者’가 ‘着’으로 된 것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이때의 수정도 철저하지는 않은 듯하다. 예컨대 老乞大의 ‘是漢兒人有’(老乞 2b, 翻老上 6b)의 ‘有’에 崔世珍이 다음과 같이 元나라 때 말로서 지금은 쓰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이다.⁶⁾

- 1) 1945년 3월에 奎章閣叢書第九 老乞大諺解 別冊附錄으로 간행되었는데, 필자는 ‘山川 哲’이며 ‘訂本老乞大諺解의 發見을 계기로 하여’란 副題가 있다. 권두의 ‘小引’에서 末松保和는 影 1의 原本이 校正未完本이나 奎章閣圖書 중에 校正本이 있어서 朝鮮史研究室의 山川囑託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진 別冊附錄의 경위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뒤에 말할 方鍾鉉선생의 앞 논문에서 末松保和의 研究室에서 金壽卿이 바로 <老乞大 諸板의 再吟味>를 발표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필자인 山川 哲은 金壽卿의 ‘創氏改名’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이 책은 通文館 李謙魯사장의 소장본이다. 이번에 필자가 通文館 소장의 老乞大와 그 諺解書를 조사하면서 비로소 보게 되었다. 조사할 기회를 준 李謙魯사장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사의를 표한다.
- 2) 두 논문은 1946년 <한글>에 발표되고, 뒤에 <— 叢國語學論集>(民衆書館, 1963)에 수록되어 있다.
- 3) 李昌臣이 成宗에게 經筵에서 아뢴 말 속에 나오는 내용이다. 成宗實錄 11년 10월 乙丑조 참조.
- 4) 老朴集覽(字解6b) 참조. 舊本이 高麗 때에 이루어진 老乞大임은 물론이다.
- 5) 위 각주 3)의 기록과 迎接都監郎廳 房貴和를 시켜 從頭目 葛貴에게 老乞大와 朴通事를 교정하게 하였다는 기록(成宗實錄 14년 9월 庚戌조)에 근거한 추정이다.

元時語 必於言終 用有字 如語助而實非語助 今俗不用(老乞大集覽上 1a)

여기에서 당시 中國 사람들의 校正을 거쳤음에도 崔世珍이 말한 新本에 이른바 ‘今俗不用’인, 元나라 때 쓰던 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오늘날 보게 되는 가장 오랜 老乞大는, 비록 철저히는 못했으나 15세기 후반 成宗때에 수정된 책이다. 國語學界에서 이용되는 자료로 말하면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原文이 담겨진 책이다. 그 老乞大도 서너종의 異本이 전한다. 추정되는 刊年の 차례로 그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異本 가운데서 가장 오렐 뿐 아니라 가장 훌륭한 책은 通文館소장인 甲寅字 覆刻本이다.⁷⁾ 다만 장4, 47, 48 3장의 판바탕은 복각이 아니라 새로 쓴 것이다. 字體가 사뭇 다르다. 모두 48장인 不分卷 1책의 木版本인데, 字畫의 마모가 전혀 없으므로 初刷本으로 보인다. 版式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가 세로 가로 각각 24.6cm, 16.8cm이며, 有界 10행에 1행 17자이다. 版心은 白口에 上下內向黑魚尾이며, 魚尾 사이에 版心題인 ‘老乞大’와 張次가 표시되어 있다. 魚尾는 15세기 후반의 刊本에 흔히 나타나는 것이나, 紙質은 16세기 전반의 楮紙이다. 따라서 覆刻은 16세기 전반에 되었으나, 그 바탕인 甲寅字本은 15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책으로 추정된다. 原文은 앞의 影1에 부록으로 수록된 奎章閣 소장의 책과 일치한다. 語助辭 ‘則’이 ‘只’로 되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翻譯老乞大나 老乞大諺解의 原文과 일치한다. 崔世珍이 말한 新本이 바로 이 책을 가리킨 것이라 생각된다.

이 책에는 원소장자가 골똘히 공부한 흔적이 상당히 남아 있다. 우선 中國音 初聲이 整齒, 齒頭이거나 各自竝書와 ㅎ, ㅁ이면 그 字母만 작은 글씨의 한글로 漢字에 붙여 써 두었다. 이들은 諺解書 곧 翻譯老乞大의 漢字注音에서 左側音인 四聲通攷音과 일치한다. 聲調도 漢字의 왼쪽 위나 오른쪽 아래의 모서리에 기호 :로써 표시하였다. 어려운 漢字나 語句는 借字까지 이용하여 한글로 풀이를 달았는데, 예컨대 ‘미실(1b), 네 ㅁㅆ모또

6) 이에 대하여는 혹 原文 分節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다. 곧 原文의 계속되는 구절인 ‘多少年紀’(老乞大 2b, 翻譯上 6b)의 첫머리에 올 ‘有’를 崔世珍이 잘못 끊었다고 할 수 있다. 실지로 老乞大諺解(上 6a)는 崔世珍의 분절을 따랐으나, 老乞大新釋諺解에서는 ‘是漢人啊 有多大年紀了’(18a)라 하고 重刊老乞大諺解에서는 ‘是漢人 有多大年紀’(上 6a)라 하여 아래 구절의 첫머리에 ‘有’를 붙였던 것이다. 그러나 같은 형식의 의문문인 ‘你那衆學生內中 多少漢兒人 多少高麗人’(老乞大 3a, 翻譯上 6-7, 老諺上 6a)이 老乞大新釋諺解와 重刊老乞大諺解에서는 ‘你那衆學生內中 有多少中國人 多少朝鮮人’(老新諺 18a, 重老諺上 6)이라 된 사실에서 崔世珍의 分節이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다.

7) 安美環, 朝鮮朝 譯學書의 版種에 관한 研究(1989년도 成均館大碩士論文)에 의하면 甲寅字覆刻本으로, 뒤에 말할 奎章閣 소장인 弘文館舊藏本과 嶺南大圖書館 소장본을 들고 있다(pp. 39-40 및 p. 50). 그러나 이들은 通文館 소장본과 다르며, 더욱이 嶺南大 소장본은 奎章閣 소장의 侍講院舊藏本, 그 論文에서 壬辰亂 이후 간행인 寫字生體字本이라 한 책(p. 39 및 p. 50)과 동일하다. 그런데 嶺南大 소장본은 實査를 못하고 書影으로만 조사하였다. 書影을 제공하여 준 그 大學의 徐鍾學교수에게 謝意를 표한다.

(2b), 글외느니 잇닷 마리사 니르려(3a)’ 등과 같다. 더욱이 난상에는 老乞大集覽의 주석을 옮겨 적은 것이 더러 나타난다. 책에 기입된 이러한 漢字품과 주석으로 미루어서 원 소장자를 포함하는 16세기 전반의 老乞大 학습에는 翻譯老乞大와 老朴集覽이 참고서로 이용된 사실과 함께, 中國漢字音 공부에서 四聲通攷音 다시 말하면 洪武正韻譯訓에 따른 표기인 左側音도 소홀히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밖에도 난상과 권말 여백에는 刊年の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 있다. 괄호 안에 年代와 쓰여진 곳 등을 주기하여 차례로 보인다.

嘉靖二十六年丁未(1547. 明宗2) 二月十八日置簿 戊申(1548) 十二月十五日 下等 二十四日 楊州除授(1a 右上. 이 기록은 원래의 책장 부분을 오려내고 다른 종이를 써서 붙였으나, 얼른 보아서는 원 冊紙와 구별되지 않는다.)

戊申年 殿講略 是年秋 又逢粗(17b, 8-10上)

辛亥(1551) 春 殿講略(27a, 7 8上)

丙辰(1556) 春 殿講略(47a, 1 2上)

嘉靖廿八年己酉(1549) 六月十八日 到楊州 是夜夢遊於完北宮 主上臆角乘一男子云云(48b 여백)

이들을 검토하면 원소장자인 冊主가 1547년 2월 18일에 老乞大를 공부할 사람으로서 이름이 장부에 올라 이듬해에 殿講에서 略과 粗의 성적을 받고 1551년과 1556년의 봄 殿講에서 모두 略의 성적을 받았는데, 1548년 12월 24일에는 外職으로 楊州에 나간 것을 알 수 있고 1549년 6월 꿈에 王을 본 것도 外職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經國大典(권1 吏典)에 따르면 楊州에는 正三品인 牧使와 從六品인 教授가 있으므로, 아마도 그 중의 한 직위에 임명된 것이 아닐까 한다. 서울에서 이 책을 공부한 官員이 있는 곳은 承文院과 司譯院이므로 冊主는 그 중의 한 官衙에 소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冊主의 身分은 어쨌든, 위 기록으로써 이 책이 늦어도 1547년 2월에는 출판되었음에 틀림없다.

通文館소장의 甲寅字覆刻本보다는 뒤지나 16세기 후반이거나 17세기 전반의 刊行으로 보이는 老乞大의 異本 두 종류가 奎章閣에 전한다. 각각 책머리의 藏書印에 따라 弘文館(도서 번호: 규5158)과 侍講院(규6293, 6294)에 소장되었던 이들은 行格과 本文내용이 甲寅字覆刻本과 완전히 일치하는 木版本이다. 그러나 版心과 匡郭의 크기에서 차이가 있다.

弘文館舊藏本은 版心이 大黑口 또는 白口에 黑魚尾와 花紋魚尾가 섞여 있고, 半郭의 크기가 세로 가로 각각 24.1cm, 16.5cm다. 분명한 後刷本이어서 전반적으로 印面이 희미하여 개칠한 곳이 더러 나타나며, 더욱이 장6, 9, 14, 46 4장은 印出할 때 冊板이 없었던 듯하여 補寫된 책장이다. 그 책장의 紙質이 인쇄된 책장과 비슷하고 또 책장의 가장자리에 스민 물기의 자국과 기입된 내용이 똑같기 때문이다. 甲寅字覆刻本보다는 덜하나,

이 책에도 공부한 흔적이 붓으로 기입되어 있다. 우선 새 課가 시작되는 곳은 藍筆로 기입이 표시되는데,⁸⁾ 이는 甲寅字覆刻本에도 나타난다. 이 책에는 난상에 課次를 ‘百七’까지 기입한 점이 다르다. 句讀點도 甲寅字覆刻本과 같이 行間에 朱筆과 墨筆로 표시되는데, 처음부터 인쇄된 것도 있다. 聲調는 藍筆로 표시되었는데, 諺解書의 권상에 해당하는 부분(24b3)까지 나타난다. 기입된 聲調는 翻譯老乞大의 注音에서 右側音과 일치하며, ‘一點擧字 二點曳字 無點放字 學者於此宜潛心而玩矣’(1a右邊)란 설명이 墨筆로 되어 있다.

侍講本舊藏本은 複本인데, 그 하나(규6293)가 影 1의 부록으로 영인되어 알려진 바 있다. 版心은 白口에 花紋魚尾로 되었으나, 간혹 黑口와 黑魚尾가 나타난다. 半郭의 크기는 세로 가로 각각 23.2cm, 16.5cm이다. 이러한 版心과 함께 紙質로 보아 일러야 17세기 전반의 刊本으로 추정된다. 이들에게도 기입된 것이 있으나, 앞의 異本보다는 적은 편이다. 규6293은 새 課의 시작을 기입하고 난상에 課次를 써두었다. 句讀點도 行間에 기입하였는데 간혹 처음부터 인쇄된 것이 있다. 규6294에는 聲調표시로 권점이 朱筆로 기입되어 있다.

이들 奎章閣本이 甲寅字覆刻本과 本文내용이 같은 것은 ‘到你’(26b4)란 誤字가 똑같이 나타나는 사실등으로써 단정하게 된다. 諺解書는 모두 ‘你到’(翻譯老下 7a, 老諺下 6b)로 정확히 인쇄된 것이다. 그리하여 甲寅字覆刻本에는 붓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校正 방식에 따라 글자 옆에 ‘下上’이라 써서 교정하였고, 弘文館舊藏本은 다른 종이에 ‘你到’로 써서 붙였다. 그러나 이들 異本은 모두 똑같이 잘못 인쇄되었던 것이다.

이들 세 異本과 本文은 같으나, 分卷된 사실과 版式등이 사뭇 다른 老乞大가 있다. 通文館소장의 2권 1책인 木版本인데, ‘康熙四十二年(1703, 肅宗 29) 四月 日開板’(下 25b8)이란 刊記에 따라 肅宗版이라 부르기로 한다. 肅宗版의 分卷은 諺解書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새 課가 시작될 경우에는 行을 바꾸어서 二葉花紋魚尾를 앞세웠는데, 이는 老乞大諺解에서 卷頭의 첫 課를 제외한 모든 課의 시작되는 곳에 二葉花紋魚尾를 앞세운 것과, 같은 漢學書인 朴通事의 諺解書가 翻譯朴通事부터 새 課를 새 行으로 바꾸어 시작한 방식을 받아들인 결과로 이해된다. 版式은 四周雙邊에, 半郭의 크기가 세로 가로 25.8cm, 16.8cm이며 1면 10행, 1행 18자이다. 版心은 白口에 上下二葉花紋魚尾와 그 사이에 書名과 卷, 張次가 ‘老乞大上 一~二十四, 老乞大下卷 一~二十五’라 있다. 上下卷의 卷次표시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앞 표지 마구리에 ‘共三’이라 써 있으므로 上下 2권 2책인 諺解와 完帙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짝이 되는 諺解本이 어떤 책인지 분명하지 않다. 課 시작의 魚尾로 보면 老乞大諺解거나 그 重刊本일 것으로 추정

8) 여기 課라고 한 것은 學習의 편의를 위하여 전체 本文을 107개 또는 111개의 단락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앞 각주 1)의 影1 別冊附錄에서는 段, 각주 2)의 方鍾鉉선생 論文에서는 課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명칭을 따른다.

될 뿐이다.

老乞大의 異本은 이밖에 本文내용을 수정한 것이 더 있다. '上之三十七年辛巳(1761, 英祖 37)'에 쓴 洪啓禧序를 갖는 老乞大新釋과 '乙卯(1795, 正祖 19) 仲秋 本院重刊'이란 刊記를 갖는 重刊老乞大가 그것이다. 이들은 本文이 老乞大를 크게 손질하였는데, 分卷이 안된 점만 다르고 자기 老乞大新釋診解와 重刊老乞大診解의 原文과 일치하므로 診解書의 異本을 설명할 때에 덧붙여 다루기로 한다.

3. 老乞大診解書의 異本

診解書는 16세기 초의 翻譯老乞大, 17세기 말의 老乞大診解와 그 18세기 중엽의 平壤 重刊本, 그리고 바로 위에서 말한 老乞大新釋과 重刊老乞大를 언해한 책을 합하여 모두 다섯 異本이 존재한다. 연대의 순서에 따라 차례로 설명하기로 한다.

(1) 翻譯老乞大

上下 2권 2책의 木版本으로, 권상은 故白淳在씨 소장이고 권하는 誠庵文庫소장이다.⁹⁾ 권하의 앞 표지만 없으나 모두 표지까지 잘 보존된 책이다. 字畫의 마모가 없으므로 初刷本이다. 版式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가 세로 가로 각각 23.7cm, 17.6cm이며, 有界 9행에 1행 19자이고 注音과 번역은 雙行이다. 版心은 黑口에 三葉花紋魚尾와 黑魚尾가 섞여 있다. 魚尾 사이에는 版心題인 '老乞大'와 卷, 張次가 있다. 이러한 版式은 앞에서 말한 影2, 3으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영인에서는 원책 난상의 校正이나 補印부분을 삭제하였다. 곧 권상의 난상에는 中國音의 注音를 붓으로 교정한 것이 있고, 권下에는 本文에 누락된 것을 보정하여 애초에 인쇄한 것이 있는데, 影印本에서는 그 흔적도 없다.¹⁰⁾ 특히 권하의 本文누락은 원책의 소루한 간행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으므로, 여기에 補印된 부분을 보인다. 注音과 傍點은 생략한다.

有甚糜病 므슴병이 인노노(19a1, 2 上)

銅筋 놋져(33a6 上)

了(41a6 上)

9) 故白淳在씨소장본은 모두 阿丹文庫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책은 제외된 듯하여 阿丹文庫에 소장되어 있지 않다. 여기의 소장처는 1972년 우리가 조사할 당시의 것임을 밝혀 둔다.

10) 木版本의 난상 補印은 印出 뒤에 押印된 口訣등 다른 책들에서도 드물지만 보인다. 1행 字數와 字體 등으로 미루어서 覆刻本의 補印이 乙亥字本에도 인쇄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乙亥字本에서 補印인지 押印인지는 實査가 있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

이 책은 木版本이나 本文字體와 印面의 인상으로써 乙亥字本の 복각이라 생각된다. 더욱이 乙亥字本인 翻譯朴通事 권상과는, 版式이 간혹 黑魚尾가 나타나는 점만 제외하고 완전히 일치하므로 16세기 초 崔世珍이 번역하여 乙亥字로 간행한 책을 복각한 것이 틀림없다. 복각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紙質로 미루어서 16세기 중엽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壬辰亂 이전의 한 攷事撮要의 冊板目錄에는 平壤에 老乞大가 있으므로 平壤에서 복각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본문에 상당한 誤字가 나타나는 일이다.¹¹⁾ 예컨대 권상의 앞쪽에서만 보아도 ‘항(향)ㅎ야(1a), 잇(엇)디, 띠(띠)디여(1b), 어재(제)(2a), 을(을)타커니와(5a), 흥과(쇠)(8a)’ 등 일일이 들 수 없을 정도다. 中央에서의 刊本에는 誤字가 그 정도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원책에 붓으로 잘못 교정한 것이 影印에서 인쇄된 것과 구별되지 않으므로 誤字로 보이게 된 것이 있다. 곧 ‘다하’가 ㅁ받침을 가져 ‘다함’으로 된 다음 예가 그것이다.

다함 저티 아닌느니라(只是不거하, 上 7a)

老朴集覽(字解 1a)과 翻譯朴通事(上 35a)에 ‘다하’란 용례가 있으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翻譯老乞大로써 공부한 흔적이 나타나는 通文館 소장 甲寅字覆刻本인 老乞大의 해당 구절의 ‘只’에도 ‘다하’라 주기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써 影印本의 이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乙亥字本の 복각인 이 책이 16세기 중엽이라면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原刊의 연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1517년(中宗 12) 11월에 쓴 崔世珍의 四聲通解序에서

夫始肄華語者 先讀老乞大朴通事二書 以爲學語之階梯 初學二書者 必觀四聲通攷 以識漢音之正俗 然其二書訓解 承訛傳僞 通攷諸字 有音無釋 承訛傳僞 則雖經老譯 莫能就正 有音無釋 則一字重出 無所適從 臣將二書諺解音義 書中古語 哀成集覽 陳乞刊行 人便閱習

이라 한 데서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가 老朴集覽과 함께 四聲通解에 앞서 간행된 것임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刊行의 下限이 1517년임이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刊行의 上限에 대하여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 崔世珍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503년(燕山 9)에 등과하였으나 이듬해 罷榜이 되었다가 1506년에 紅牌를 돌려 받았고, 1509년(中宗 4)에 상중에 있으면서 谗을 두었다고 하여 臺諫의 탄핵을 받는 등 宦路의 초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므로 1510년 무렵의 刊行으로 봄이 온당하지 않을까 한다.

11) 平壤版 古書는 中央의 官版本에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刻板이나 紙質이 좋다. 譯學書만 예를 들더라도 뒤에 말할 平壤版 老乞大諺解를 비롯하여 朴通事新釋과 그 諺解, 淸語老乞大新釋등이 바로 그러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翻譯老乞大가 平壤版이라 한 근거는 솔직히 말하면 攷事撮要의 冊板目錄이라 할 수밖에 없다. 平壤版이라 하기보다는 단순히 地方版이라 함이 온당할 것이다.

정확한 刊年은 어떻든, 翻譯老乞大는 老乞大의 가장 이른 諺解書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최초의 譯學書諺解다. 그때까지 漢學書를 포함하여 蒙學書나 倭學書 등 어느 것도 번역되어 간행된 일이 없었다. 이리하여 翻譯老乞大는 譯學書, 좀더 좁혀서 말하면 漢學書 諺解의 典範이 되었다. 經書와 醫書의 諺解書는 原文을 文段으로 나누고, 그에 대한 번역을 대조하여 실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거기에 經書 諺解에는 原文에 口訣을 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翻譯老乞大는 原文을 짧은 구절로 나누어 原文의 漢字마다 中國음을 四聲通攷와 당시 中國語音에 따라 두가지 注音を 한 다음에, 그 번역을 실는 방식인 것이다. 이 방식은 翻譯朴通事에도 그대로 채택되었는데, 課를 구분하는 방법만 추가되어 후대 漢學書의 번역에 그대로 답습되었다. 蒙學書 등 다른 譯學書는 해당 외국어의 발음을 한가지로만 注音한 것이 다를 뿐, 原文의 分節과 번역은 이 방식에 의거하였다. 그러한 데서 翻譯老乞大의 의의를 새삼 인식하게 된다.

끝으로 이 책과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學界에서는 문제의 凡例가 이 책과 翻譯朴通事에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우리도 이 책의 表題, 首題, 版心題가 모두 老乞大임에도 이 凡例에 나오는 書名에 따라 翻譯老乞大라 불러야 한다고 말한 일이 있다.¹²⁾ 그런데 凡例의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면, 그것은 漢字의 中國음을 한글로 표기한 注音에 대한 것이다. 모두 9항인 凡例의 어느 조항에도 諺解에 대한 것은 없다. 그러나 凡例는 이 책의 漢字注音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諺音’이란 제3항은

在左者 卽通攷所制之字 在右者 今以漢音 依國俗撰字之法 而作字者也云云

이라 하여 이 책의 두가지 注音を 단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어떤 항목은 이 책의 注音과 무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正俗音’이란 제8항이 그것이다.

凡字音有正音 而又有俗音者 故通攷先著正音於上 次著俗音於下 …… 今之反譯 書正音於右 書俗音於左 俗音之有兩三呼者 則或書一音於前 又書一音於後 而兩存之

이에 따르면, 崔世珍의 ‘翻譯’에서는 正音を 오른쪽, 俗音を 왼쪽에 적고 俗音이 두어 가지 있으면 하나를 앞에 적은 다음에 다른 것을 뒤에 적어 함께 보였다고 한다. 여기의 正俗音を 이 책 곧 老乞大 최초의 諺解書인 翻譯老乞大의 두가지 注音과 결부시켜 설명할 수는 있다. 注音의 右側音과 左側音を 이 항목의 正俗音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달리는 이 항목의 左右가 뒤바뀌었다고 하여 左側音を 正音, 右側音を 俗音이라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항목에서 말하는 복수의 俗音표기는 이 책 注音의 어디에도 없다. 右側音

12) 安秉禧, 國語史資料의 書名과 卷冊, 冠岳語文研究 7(1982)[國語史資料研究, 문화과학사, 1992에 수록] 참조.

과 左側音의 어느 쪽이 俗音이든, 단수의 注音만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의 凡例는 이 책의 諺解와 관계가 없으며, 中國音의 한글에 의한 注音과도 완전히 합치하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하여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는 老乞大와 朴通事を 崔世珍이 언해한 책으로 學界에서 통용되는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の 凡例일 수 없다. 지금 전하지 않으나 漢字의 한글 注音를 갖는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의 凡例인 것이다. 凡例의 내용으로 판단하여 그 책은 老乞大와 朴通事에 대한 여러 가지 注音를 한글로 행한 것이라 생각된다.¹³⁾ 나아가 그 注音 가운데서 四聲通攷音과 이른바 國俗撰字의 방법으로 표기한 注音의 두가지만 諺解書인 우리의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に 옮겨 적은 것이라 추정된다.¹⁴⁾ 그러므로 凡例 제목에 나오는 ‘翻譯’은 그 내용에 나오는 ‘反譯’과 똑같은 말로서,¹⁵⁾ 四聲通解의 凡例에서 蒙古韻略을 설명하여

胡元入主中國 乃以國字翻譯漢字之音 作韻書以教國人者也

라고 한 ‘翻譯漢字之音’과 같은 뜻을 가리킨다. 諺解를 뜻하는 翻譯이 아니다. 諺解書인 이

- 13) 조항은 없으나 새김에 관련된 것으로 제목 아래의 ‘漢訓諺字 皆從俗撰’이라 한 夾註가 있다. 漢訓이 原文 漢字의 訓釋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더욱이 老乞集覽에는 유일하지만 反譯 곧 翻譯의 ‘釋’ 곧 새김을 인용한 예가 있다. 곧 ‘剛父帽’(老集下, 3b)에 대하여 中國에서 질문하여 적어 온 새김과는 달리 反譯의 大帽 곧 갓이란 새김이 옳다고 한 주석이 있다. 이에 그 책에는 부분적으로 어려운 中國語 단어의 새김인 ‘漢訓’을 한글로 베풀기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된 내용은 凡例의 모든 조항 그대로 老乞大와 朴通事 本文의 한글 注音이라 생각된다.
- 14)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일찍이 박태권교수가 똑같이 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는 박태권, 국어학사논고(샘문화사, 1976), pp. 47-52를 참조할 것. 그러나 박교수는 凡例 내용에 대한 검토에서 근거를 찾지 않고, 四聲通解序의 ‘將二書諺解音義 書中古語裏成輯覽’을 ‘將二書諺解音義 書中古語裏成輯覽’이라 해석하고 諺解書인 翻譯老乞大나 翻譯朴通事の 原 책 首題나 版心題에 翻譯이란 말이 없다는 사실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였다. 후자는 이해가 되지만 전자는 잘못 해석하여 근거를 삼은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乙亥字로 간행된 諺解書를 가리키는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に 대하여, 한글로 注音만 한 翻譯老乞大朴通事가 제일 먼저 편찬된 다음 諺解老乞大朴通事가 이어서 편찬되고 뒤에 이를 바탕으로 老朴集覽이 편찬된 다음(이는 위의 잘못된 해석에 말미암는다) 分卷이 된 老乞大朴通事諺解로 편찬된 책이라 설명한다. 문제의 凡例가 해당하는, 곧 한글 注音인 翻譯老乞大朴通事の 편찬이 앞선 것은 인정되나, 諺解書에 두 종류가 老朴集覽의 앞뒤에 있었다고 하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우리는 한글 注音인 翻譯老乞大朴通事가 편찬된 뒤에 諺解書인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가 老朴集覽과 동시에 편찬, 간행된 것으로 생각한다. 박교수는 翻譯朴通事に 老朴集覽을 참조하라는 註記가 있는 사실로써 편찬의 앞뒤를 말하고 있으나, 동시에 편찬된 崔世珍의 吏文諸書輯覽에서 吏文輯覽, 于公奏議輯覽, 駁稿輯覽, 擇稿輯覽의 관련 語句가 서로 참조하도록 한 것이 있으므로 참조하라는 註記가 편찬의 앞뒤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吏文諸書輯覽에 대하여는 安秉禧, 崔世珍의 吏文諸書輯覽에 대하여, 주시경학보 1(1988) [國語史資料研究, 문학과지성사, 1992에 수록] 참조.
- 15) 四聲通解凡例에 反切을 ‘翻譯之式’이라 한 바와 같이 당시에는 翻譯과 反譯은 음과 뜻이 똑같은 말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책은 老朴集覽의 凡例에서 崔世珍 자신이

兩書諺解 簡帙重大 故朴通事分爲上中下 老乞大分爲上下 以便緝閱

이라 하고 앞의 四聲通解序에 ‘二書諺解音義’라 한 바와 같이 老乞大諺解라 함이 나올 것이다. 그러함에도 굳이 翻譯老乞大라 함은 學界의 관용을 따르기도 하려니와 곧 보게 될 老乞大의 후대 諺解書가 首題와 版心題에서 老乞大諺解라 한 것과 혼란을 피하기 위한 배려에 말미암는다.

(2) 老乞大諺解

上下 2권 2책의 戊申字本이다. 奎章閣에 複本으로 4부가 소장되어 있고, 같은 책으로 內賜本 2부가 慶北漆谷(李敦柱씨 소장)과 美國컬럼비아大學 동아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¹⁶⁾ 모두 잘 보존된 책이나, 동아도서관본은 ‘宣賜之記’란 印記가 있는 권상 첫머리도 깨끗하나 內賜記가 없다. 반사를 받은 사람의 후손이 책을 넘길 때 떼어버린 결과라 하겠다. 版式은 四周雙邊에 半郭의 크기가 세로 24.8cm, 가로 17.5cm이며, 有界 10행에 1행 19자인데 注音과 번역은 雙行이다. 版心은 白口에 二葉花紋魚尾가 나타나나 간혹 三葉花紋魚尾도 있다. 版心題는 首題와 같이 ‘老乞大諺解’라 되어, 卷, 張次와 함께 魚尾 사이에 놓인다. 이러한 版式은 모두 같으나, 권下는 組版까지 따로 한 張이 있어서 半郭의 크기와 魚尾가 다른 異本이 있다. 곧 권下의 장4, 7, 11, 14 등은 本文의 교정이 잘 된 책 곧 校正本은 三葉花紋魚尾를 갖고 있으나 校正이 제대로 안된 책 곧 未校正本은 二葉花紋魚尾를 갖는다. 그러나 책장에 따라서는 완전히 같은 版이다. 그러므로 校正本은 未校正本과 거의 같은 시기에 誤字가 심한 것은 組版을 새로 하면서까지 校正을 하여 이루어진 책이다. 未校正本은 일부 校正도 있으나 권下의 경우에는 誤字가 있는 대로 만들어진 책인 것이다.

諺解의 체재는 원칙적으로 翻譯老乞大를 따랐다. 곧 原文을 잘막한 語句로 나누어서 漢字마다 두가지 注音을 한글로 한 다음, 권표를 한 뒤에 번역을 실는 방식이다. 語句의 분할과 漢字의 注音은 방점이 없으나 翻譯老乞大와 거의 다르지 않다. 右側音의 ‘스, 즈, 츠’를 ‘스, 즈, 츠’로 바꾼 것이 크게 달라진 注音이다. 번역은 近代國語의 모습으로 되

16) 漆谷의 內賜本은 약 20년전에 책의 형태와 內賜記만 조사하였고, 컬럼비아大學本은 동아도서관 李海瓊선생이 보내 준 書影으로 조사하였다. 李선생은 뒤에 설명할 老乞大新釋諺解(권 1)의 全冊 복사도 보내 주었다. 특히 老乞大新釋諺解는 國內에 없는 책이므로 복사로나마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더욱이 李선생은 일체의 복사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다. 여기 특별히 적어서 깊은 謝意를 표해 마지않는다. 아울러 중간에서 連絡의 수고를 한 서울大學校圖書館 金和澤씨에게도 謝意를 표한다.

어 상당히 다르다. 그밖에 이 책에서 체재가 달라진 사실은 각 課를 시작할 곳에 二葉花紋魚尾를 두어서 학습에 편의를 도모한 점이다. 行은 바뀌지 않으나 課의 구분이 되기 때 문이다. 다만 각 권의 처음은 魚尾가 없어도 課의 시작이 분명하여 바로 本文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나뉜 課는 권상이 54, 권하가 53으로 모두 107課가 된다.

이 글 첫머리에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책은 影1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影印底本의 권下는 상당한 誤字가 교정되지 않은 未校正本이다. 影印本이 간행된 이듬해에 影印底本의 잘못된 선정을 인정하여 奎章閣소장의 老乞大와 그 諺解書의 異本을 조사하고 誤字가 교정된 校正本과 影印底本の 對較를 행하여 影印本의 別冊附錄으로 간행하였다.¹⁷⁾ 다시 그 이듬해에는 그 校正과 誤字에 대한 方鍾鉉선생의 더욱 상세한 보고가 있었다.¹⁸⁾ 그러나 아직도 교정되지 않은 책의 影印本만 그대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影印底本과 校正本에 대하여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

影 1은 奎章閣叢書의 하나다. 그 叢書는 奎章閣藏書에서 善本일 뿐 아니라 資料로서 가치가 인정된 책이 선정되어 영인된 것이다. 이 책의 奎章閣藏書는 ‘廂庫’란 印記를 갖는 3부와 아무 印記가 없는 1부의 모두 4부이다. 전자는 후자에 비해서 冊紙가 두껍고 질이 좋은 편이다. 거기에 廂庫는 昌德宮에 있는 창고일 뿐 아니라, 그 印記를 가진 책은 善本이 많다.¹⁹⁾ 그리하여 影印底本(규2044)은 이들 책의 대표로서 목록번호 ‘奎/3917/4A’로 등록된 것이다. 나머지 책들은 複本으로서, 전자의 두 책(규2304, 규2347)은 ‘奎複/3917/4A’와 ‘奎複2/3917/4A’, 후자(규1528)는 ‘奎複3/3917/4A’로 등록되었다. 여기에서 影印底本の 선정은 매우 ‘올바로’ 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겉으로 보아 影印底本은 善本이고, 圖書目錄도 그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冊紙가 상대적으로 얇고 질이 떨어지며 印記도 없는 책이, 廂庫의 印記를 갖는 책들과 달리 오히려 誤字가 교정된 사실은 本文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확인된다. 옛 典籍에 대한 평가가 形態로만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말을 늘 한다. 그러나 이 책의 影印底本을 선정하는 데서는 그 말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奎章閣소장의 校正本이 影印底本과 같은 未校正本에 대하여 갖는 특징은 內賜本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위에서 말한 권下의 새 組版이나 校正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影

17) 앞 각주 1)을 참조.

18) 앞 각주 2)를 참조.

19) 太宗實錄에 의하면, 1404년(太宗 4) 10월에 昌德宮의 營建工事が 시작되어 1405년 10월 辛巳에 준공되었는데 廂庫 三間도 그때 건축되었다. 그러므로 廂庫란 印記를 갖는 책은 昌德宮 안에 보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奎章閣 소장본에는 國語史資料로만 보아도 1631년(仁祖 9)의 大學諺解, 1656년(孝宗 9)의 四聲通解, 1676년(肅宗 2)의 捷解新語 등에 그 印記가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앞의 각주 2)에 나오는 方鍾鉉선생의 앞 論文中에서 誤校가 많은 影1의 底本이 廂庫에 소장된 것을 이상하다고 한 설명이 이해된다.

印底本도 권上은 校正本과 똑같이 校正이 행해져 있다. 影印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首題의 ‘乞’ (1a1)에 대한 注를 오려내고 다른 종이를 붙이고 붓으로 써 넣은 것과 ‘마즘을’ (4b3)의 ‘을’이 ‘올’에서 한 획을 끊어버리고 된 것등 20여 곳의 校正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影印底本을 未校正本이라 한 것은 권下에 국한된다. 그 권하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는 校正이 행해졌다. 예컨대 ‘高’ (1a3, 1a6)의 한 注음이 ‘갈’에서 ‘갭’으로 개칭되고 ‘훈디위’ (1b1)의 ‘디’가 원래의 ‘시’를 흐리게 한 위에 押印된 것 등이 그러하다. 校正本은 처음부터 ‘갭, 디’로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그 未校正本에서는 注音은 말할 것도 없고 諺解 부분에서도 ‘羊저재 (1b2), 셋지형 (3b6), 잇던가 (3b8)’ 등과 같이 교정되지 않은 것이 많다. 校正本은 모두 ‘羊저재, 셋재형, 잇던가’ 등으로 되어 있다. 校正本과 影印底本인 未校正本의 차이는 金壽卿과 方鍾鉉선생이 조사한 것보다 더 많다. 앞으로 이 책의 이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刊年은 종래 通文館志 권 8, 書籍조에 ‘內賜老乞大諺解’를 들고

二本 康熙庚戌陽坡鄭相國啓令芸閣鑄字印行

이라 한 기록에 따라 1670년(顯宗11, 庚戌)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漆谷의 內賜本에는

康熙十四年正月二十九日 內賜承政院假注書李聃命 老乞大諺解一件云云

의 內賜記가 있어서 1675년(肅宗1) 1월에 반사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通文館志의 ‘康熙庚戌’이 陽坡 鄭太和의 上啓시거나, 芸閣 곧 校書館에서 活字로 간행한 시기이나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의 朴通事諺解에 대한 通文館志 記述의 年紀가 간행한 시기로 해석되므로 종래의 추정대로 1670년이 刊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內賜年代를 중시하여 康熙庚戌을 上啓한 年代로 해석하더라도 5년 미만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3) 平壤版 老乞大諺解

影 4에 重刊老乞大諺解와 함께 영인한 책이다. 底本은 奎章閣 소장이다. 위의 老乞大諺解를 1745년(英祖 21) 平壤監營에서 중간한 것이다. 책머리에 있는 乙丑(1745) 仲秋上澣의 卞燧序에 ‘又以關西是譯舌所通之地 命印於關西’란 기록과 책 뒤의 ‘平安監營重刊’이란 刊記가 그 증거다. 그러나 重刊은 중앙의 司譯院에서 계획되어 校正이 행해져서 原稿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卞燧序에

舊有活字印布而歲月寢久 若干印本幾盡散佚 又或有古今聲音之差殊 學譯者病之 今我都提舉虛舟金相國 課以本業 勵以製述 誘掖獎勸 靡不庸極 提舉華山洪侍郎 亦倦倦於講明成就

而念諺解之校整重刊爲急務 相國~~監~~侍郎後先陳達自上 …… 於是院之慣漢音者 相與辨明字音 考校文義 不數月而工告訖

라 한 데서 都提調인 虛舟子 金在魯와 提調인 華山 洪侍郎의 발의로 司譯院에서 字音を 밝히고 文義를 상고하여 두어 달에 일을 마쳤다고 한다.²⁰⁾ 책 뒤에 校正官으로 司譯院教授 申聖淵과 前司譯院正 卞燮 등과 書寫官으로 前司譯院僉正 林得雨등 校正과 原稿작성에 關여한 司譯院의 前現職譯官 8명의 명단이 나타난다. 校正官인 前司譯院正 朴道貫만 監印으로 注記되어 있다. 그러므로 司譯院에서 이루어진 原稿를 平壤으로 가져 가서 朴道貫의 감독 아래서 그 곳에서 간행되었으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司譯院에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奎章閣 소장만이 알려져 있는데, 版式과 諺解의 체재 등은 重刊本답게 老乞大 諺解를 답습하고 있다. 版式은 四周雙邊에 半郭 크기가 세로 가로 각각 24cm, 16.8cm이며 有界 10행에 1행 19자이고 注音과 번역은 雙行이다. 版心은 白口에 二葉花紋魚尾와 版心題 등이 原刊本과 똑같이 魚尾 사이에 있다. 課를 나누는 방식과, 시작되는 곳에 二葉花紋魚尾를 두는 것까지도 같다. 그러나 注音과 번역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注音에서는 四聲通效에 따른 표기인 左側音이 크게 다르다. 권上 1a에서만 보아도 ‘大, 解, 你, 那, 裏, 麗, 今, 幾, 時, 離, 了, 既, 是, 半’의 14자에서 다른 것이다. 모두 63자에 대한 注音이 나타나지만 중복된 漢字를 제외하면 36자이므로, 2/5 정도의 注音이 수정된 것이다. 이 注音은 후대의 老乞大新釋諺解와 重刊老乞大諺解에서 계승된다. 그러나 右側音은 달라지지 않는데, 老乞大新釋諺解 등에서 대대적인 수정이 행해진다. 그러므로 注音에 관한 한 平壤版은 老乞大諺解와 老乞大新釋諺解의 중간 위치에 있다.

번역에서도 表記, 音韻, 語彙에 걸쳐 두루 차이가 나타난다. 表記에서는 分綴이 약간 늘어난 편이다. 괄호 안에 出處와 原刊本の 老乞大諺解의 語形을 보이는데 原刊本 出處는 거의 같으므로 제시하지 않는다. 특별히 卷下가 표시되지 않으면 모두 卷上의 語形이다.

적이(2a, 6a, 8b, 저기), 마즘을(4b, 마즈믈), 널룸이(10a, 니르미), 널음이(10a, 널오미), 적으나(11b, 저그나)

音韻에서는 口蓋音化와 脣音化가 나타난다. 口蓋音化가 平壤版에서 나타난 것은 原稿가 中央에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가지 물홀가(2a, 가디 모ㅎ가), 어지니라(8b, 어디니라), 엇지(15a, 엇디): 어딤 부리위야(10a, 어딤 브리위야), 부리우라 가(15b, 브리우라 가)

20) 華山 洪侍郎은 洪啓禧가 아닐까 하나, 그가 華山이란 號를 썼는지 분명하지 않다.

어휘에서는 ‘조차(1a), 만일에(3a), 當直(3b)’ 등이 老乞大諺解의 ‘브터, ㅎ다가, 덕일’ 등을 대신하였다. 이들은 固有語와 古形의 어휘가 漢字語와 新形으로 바뀐 예들인데, 다음 예가 그것을 잘 드러낸다.

官司口舌을 만나거든(下 42a, 구의종과 口舌의 익을 만났거든), 孳育하는 증싱도 이시며 人口와 奴婢도 잇다가(下 43b, 기르는 효근 증싱과 굴근 증싱도 이시며 더브리는 사롭이며 종들도 잇다가)

이상의 설명으로써 平壤版은 老乞大諺解보다 70년이나 뒤에 나온 책이므로 下燈序의 ‘古今聲音之差殊’ 로써 注音과 번역이 다 새로운 모습의 책이라 하겠다.

(4) 老乞大新釋諺解

이 책은 18세기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간행된 일련의 譯學書 新釋 중에서 첫번째로 간행된 책이다. 通文館志 권 8 什物續조에 乾隆癸未(1763, 英祖 39)에 訓長인 邊憲이 수정하여 芸閣에서 간행한 新釋老乞大와 그 諺解의 冊板이 등록되어 있고, 권 8 書籍續조에 新釋老乞大 1권과 新釋老乞大諺解 3권이 등록되어 있는데, 같은 곳에서 朴通事新釋을 新釋朴通事라 하였으므로 老乞大新釋諺解가 老乞大新釋과 함께 1763년 校書館에서 간행된 木版本임은 분명하다.

편찬의 경위에 대하여는 1761년 洪啓禧序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老乞大不知何時所創 而原其所錄亦甚草草 且久而變焉 則其中用無怪矣……余嘗言不可不大家釐正 上可之 及庚辰(1760) 銜命赴燕遂以命賤臣焉 時譯士邊憲在行以善華語名 賤臣請專屬於憲 及至燕館 遂條改證別其同異 務令適乎時便於俗 而古本亦不可刪沒 故併錄之 蓋存羊之意也 書成名之曰老乞大新釋 承上命也 既又以朴通事新釋 分屬金昌祚之意筵稟蒙允 自此諸書并有新釋 可以無礙於通話也

곧 老乞大의 내용이 원래 거친데다 시일이 오래되어 소용에 맞지 않아 일찍부터 고쳐야 한다고 하였는데, 1760년 北京에 使臣으로 갔을 때 譯官 邊憲에게 일일이 時俗에 맞게 고치게 하였으나 古本도 아예 버릴 수 없어 함께 신는다고 하며, 따로 朴通事新釋을 金昌祚에게 편찬하도록 하여 中國사람과의 通話에 지장이 없게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原典인 老乞大新釋의 권말에는 檢校書寫諸官이란 版心題를 가진 1장에 檢察官으로 金昌祚와 邊憲, 校正官으로 李天埴등 7명, 書寫官으로 趙東洙등 4명의 前現職 司譯院官僚의 명단이 있다. 매우 힘을 들인 편찬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老乞大新釋諺解는 傳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1946년에 方鍾鉉 선생이 宋錫夏교수 소장의 권 2, 3 2책을 소개하여 책의 내용과 諺解의 체재 등을 밝혔다.

특히 課가 끝나는 대로 老乞大諺解에서 해당되는 原文의 漢字와 그 右側音を 짝지어 놓아서 洪啓禧序의 ‘存羊之意’를 엮보게 한 것까지 언급하고 있다. 事變으로 그 책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 책은 전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다행히 권1 1책이 컬럼비아 大學에 소장된 것이 알려졌다. 여기 권1을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한다.²¹⁾

이 책의 版式은 四周雙邊에 半郭의 크기가 세로 23.3cm, 가로 17cm이며, 有界 10행에 1행 20자이고 注音과 번역은 雙行이다. 版心은 版心題로 ‘老乞大新釋’, 下向三葉花紋魚尾와 그 아래에 ‘諺解’와 卷次 ‘一’ 그리고 張次가 있다 首題는 ‘老乞大新釋諺解’와 卷一이 나타난다. 通文館志의 기사로 이미 밝혀진 것이지만, 이 卷次로써 3권임이 다시 확인된다. 이는 한 課가 끝나면 1자 낮추어서 洪啓禧序에서 말한 古本 곧 老乞大諺解에서 해당 原文과 右側音を 옮겨 실어서 책의 분량이 늘어난 데 말미암는다. 권1이 36과까지 실렸으나 모두 59장인데, 老乞大諺解 권상이 54과에 모두 64장을 실은 것으로 분량의 차이를 알 수 있다. 古本の 原文을 옮겨 실은 일은 諺解의 체재까지도 老乞大諺解와 다르게 한다. 곧 原文을 語句로 나누어서 두 가지 注音を 달고 권표 다음에 번역을 실는 것은 똑 같으나, 새 課가 새 行으로 시작하게 하여 아주 다른 방식이 된 것이다. 그밖에 한 語句의 번역이 끝나면 부호 ㄴ을 두었는데, 이는 古本 原文의 語句를 구별하는 데도 사용되었으므로 유용한 부호이다.²²⁾

이 책은 原典을 수정한 老乞大新釋의 諺解本이므로, 原文이 앞선 시기의 諺解書와 다르다. 翻譯老乞大로부터 平壤版 老乞大諺解까지는 老乞大의 原文을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처음의 問答만을 대조하여 보이면

阿哥你打那裏來(1 1a, 大哥你從那裏來)

我從朝鮮王京來(1 1a, 我從高麗王京來)

語助詞와 語彙의 사용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된다. ‘高麗’를 ‘朝鮮’이라 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漢兒人, 漢兒言語, 漢兒地面’ 등도 ‘中國人, 官話, 中國地方’ 등으로 수정하였다.

原文뿐 아니라 注音과 번역에서도 이 책은 상당히 달라져 있다. 注音에서의 左側音은 平壤版을 따르나 右側音은 크게 수정하였다. 권1의 장1에서 바뀐 注音과 괄호 안에 이전 注音을 대조하여 보인다.

21) 이 책 形態에 대한 기술은 韓國書誌學會 編刊, 海外典籍文化財調查目錄 -- 美國 Columbia大學 東亞圖書館所藏韓國本目錄(1994)에 의한다. 사실 이 책의 소장도 위 目錄에서 알게 된 것이다.

22) 朴通事新釋諺解에서도 부호 ㄴ이 꼭같이 사용되어 있다. 그 책은 이른바 古本에서 原文과 右側音を 옮겨 실지 않았으나, 같은 漢學書의 新釋이므로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